## 머리말

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과 훌륭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사람들의 위선만 키우기에 딱 알맞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좋은 책의 내용이나 성현(聖賢)의 말씀도 실천을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옛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때문에 곧장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고전이나 경전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는 고리타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위선자도 섞여 있습니다. 고전이 지혜의 보고(寶庫)이기는 하지만, 무작정 따르기에는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칫 젊은이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여기서 율곡 선생의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하면서 한 고민도 바로 이점입니다. 이 글의 내용에서 모두 당시 조선사회의 폐단을 진단하고 개혁을 주장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읽고만 지나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율곡 선생의 말은 사회시

스템이 오늘날과 전혀 다른 옛날을 두고 한 말이어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설을 덧붙여 유비적(類比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글들을 읽는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의 해설이라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서, 그 많은 해석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우리 문제와 관련지어 비판적으로 읽고, 각자의 삶이 진취적이고 생산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일일이 주석을 달거나 뜻을 풀이하고, 약간의 원문을 실어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냥 쉽게 본문에서 풀어낼 수도 있었지만, 우리문화의 이해와 계승의 차원에서 사소한 옛 용어와 이름 하나라도 알아두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글을 옮기는 데 도움을 준 성균관 한림원 임옥균 교수님과 편집을 맡은 출판사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10

이종란